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로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특선 양극로 인간극장 <순남씨의 비밀정원>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의 내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중계방송 정전62주년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45 세계인 스페셜(재)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네트워킹 특선 초초초 55 바르말 고운말	10 월화드라마 <너를 기억해>(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여름방학특집 애니왕국
12	00 KBS 뉴스12		10 MBC 청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00 SBS12뉴스 50 닥터 365
1 50 뉴스특급	00 KBS 명품역사관 역사저널 그날(재)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1대100	10 꾸러기 식사교실 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00 KBC 열린토론회(재)
2	0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생생정보 스페셜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	0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직인직설	00 콘서트 필 50 바르말 고운말 55 튼튼생활제초	45 후토스 잃어버린 숲	00 MBC 뉴스 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서어 40 문화 사색	00 SBS 뉴스 10 절망과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재)
4 2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명강의 시리즈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유치원 콩다콩	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00 꾸러기 탐구생활 스페셜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라피	10 검정고무신 40 동물의 세계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라이프 15 KBC 저녁뉴스 30 꿈의 라이브 프리즈스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병학 특집 우리말 한 판	5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토크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왕국목>
8 20 아내가 뿔났다(재)	25 가족을 지켜라	30 반려동물극장 <단짝>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너를 기억해>	00 월화 특별기획 <왕선>	00 월화드라마 <상류사회>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라인 40 글로벌 다큐멘터리 5부작 인간과 우주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어부의 만찬	15 힐링캠프
12 4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재)	40 우리 생애 마지막 여름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15 MBC 뉴스24 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0 실컷나는 세상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연 스페이스 정글	14:45 미연마이로봇	19:30 EBS뉴스
05:30 건강한 아침	09:40 토크쇼 부모 - 고수다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5:40 나의 성공비결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다크 오늘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시계마을 타기톡!	20:50 세계테마기행 <히말라야 열풍, 네팔>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45 미술 탐험대	21:30 한국기행 <여름 환천>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EBS 다크프라임 <빛의 물리학>
07:30 출동! 슈퍼맨(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22:45 달라졌어요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45 골디와 친구들(재)	23:35 세계 전문록 아틀라스 <동남아 섬 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7:0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24:05 지식채널e
08:20 두다다콩(재)	13:1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10 EBS인문학특강
08:3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13:3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8:50 골디와 친구들	13:5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17:45 꼬마버스 타요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15 피터 래빗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9:20 놀이터 구조대, 보잉(재)	14:30 허풍선과 과학쇼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 B형>
01:40 " <문학-알파개념>	14:50 올림포스 <문학-알파개념>(재)
02:30 " <미적분>	15:40 " <미적분>(재)
03:20 " <수학 1>	16:30 " <수학 1>(재)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 <미적분>	17:20 " 평가문제 <미적분>(재)
05:00 뉴턴스런 <물리>	18:10 2016 N제 <국어 A>
06:00 " <생명과학>	19:30 " <영어>
06:50 " <동아시아사>	20:00 EBS창사특집 <문학A형>(재)
07:40 " <윤리와 사상>	20:50 인터넷 수능 <국어A형>(재)
08:30 2016 수능개념 <유해정의 국어>	21:50 " <문학A형>(재)
09:20 " <심주석의 수학>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수학>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A>	23:10 인터넷수능 <영어독해연습-종합>
11:00 " <수학>	23:50 지식채널e
12:15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재)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4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0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16:2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09:00 출제문제 수험 EBS MATH	16:4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09:10 중학단기특강 <영어1 독해240제>	17:0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09:50 " <수학1 280제>	17:20 중등수학 개념잡기
10:30 " <역사 1>	18:00 중학단기특강 <영어3 독해240제>
11:10 중학단기특강 <영어2 독해240제>	18:40 " <수학3 300제>
11:50 " <수학2 300제>	20:00 EBS 기획특강 <수학1(상)>
13:10 등업신공 <수학1(상)>	20:50 EBS 기획시리즈 <과학1(상)>
13:50 " <과학1(상)>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4:30 " <수학2(상)>	22:00 등업신공 <과학2(상)>
15:2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22:40 " <수학 3(상)>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7일(음 6월 12일 甲辰)

子	48년생 적부의 판단을 해야 할 입장이 된다. 60년생 단독의 입장 보다는 주변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72년생 처세와 만남의 순기능이 두드러진다. 84년생 근본적인 원인부터 분석 해봐야 할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11, 12	午	42년생 경기도 전에 뛰려고 하는 격이다. 54년생 진행되어 왔던 일에 이변이 나타날 수 있다. 66년생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신경 쓸 필요가 없으나, 78년생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절실한 문제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3, 76
丑	49년생 확대 해석해서 전경위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61년생 비우고 나면 바로 채워질 것이다. 73년생 가림에서 비파 소리가 날 정도로 분주하였다. 85년생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다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4, 73	未	43년생 미루어져 있던 일이 재개되리라. 55년생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만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다. 67년생 발전을 위한 각고의 갈래가 예상된다. 79년생 변화없이 일관되게 진행한다면 소기의 목적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80, 84
寅	38년생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 50년생 문혀 버릴 뻔한 사실이 드러난다. 62년생 당연시 해왔던 점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74년생 꾀거를 이루리라. 86년생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16	申	44년생 서로 탐색하는 시기를 갖게 될 것이다. 56년생 성과를 가져올만한 원인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68년생 손발이 척척 들 어맞듯이 순조로움을 더하리라. 80년생 조건을 구비해야 추진력 을 갖게 된다. 행운의 숫자 : 94, 17
卯	39년생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51년생 성심을 다 한다면 분명히 이루어라. 63년생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75년생 급변된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라. 87년생 큰일 나는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4, 22	酉	45년생 단속직에서이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57년생 손바람 날 정도로 빨리 처리해야만 효과를 보느니라. 69년생 즐거움이 넘 쳐서 웃노래가 나올 것이다. 81년생 복잡해지면서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정황이다. 행운의 숫자 : 10, 01
辰	40년생 길흉이 혼재하니 밤심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52년생 목표에 이르기 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64년생 먼저 손을 쓴다면 성사 된다. 76년생 오늘의 노력은 미래의 경쟁 력을 낳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5, 01	戌	46년생 무릅쓰고 묵묵히 진행하다 보면 의외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58년생 경원자의 지해를 빌린다면 진적이 빠르다. 70년생 확실하게 청산하는 것이 길조를 부른다. 82년생 망심하다가 가는 역정이 무너질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3, 05
巳	41년생 불변함이 따르더라도 당분간 함께 하자. 53년생 인식하고 있는 바보다 훨씬 못 미치지 안심해도 되느니라. 65년생 주권을 갖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머지않 아서 곧 표면으로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05, 98	亥	47년생 일부로부터 윤곽이 드러나리라. 59년생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니 각고하고 담벼야 한다. 71년생 우회적인 방법보다 직접적인 실행이 더 현명하다. 83년생 실기 된 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리라. 행운의 숫자 : 18, 2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관객에 좋은 책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선택”

영화 '베테랑' 광역수사대 형사 役 황정민



“친구한테 선물하고 싶은 정도로 너무 재밌는 책이 있었어요. 책장을 넘기기가 싫고, 나만 보기에 가까운 그런 책이요. 저는 그런 대본을 골라요. 관객들에게 좋은 책을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대본을 보죠. 제가 맡은 역할이 크든 작든 그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 황정민(45)은 23일 서울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자신이 출연할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책 선물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상대방의 취향이 각기 다르니 고민스럽죠. 예를 들면 저는 시가 너무 좋은데 상대방이 시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보며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책(대본)인지를 제일 먼저 봐야죠.”

황정민은 “영화는 감독이나 배우가 좋아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관객이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재미와 의미를 주는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정민은 내달 5일 개봉하는 영화 ‘베테랑’에서 안하무인의 재벌 3세를 쫓는 광역수사대 행동과 형사역을 맡았다.

‘베테랑’은 역시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황정민이 광수대 형사로 분했던 ‘부당거래’와 출연 배우들과 부패한 사회를 상징하는 설정 등이 여러모로 비슷하다. 황정민은 ‘베테랑’이 ‘부당거래’와 비교하면 훨씬 더 오락적인 영화라고 소개했다.

“이번 영화를 ‘부당거래’와 연관짓고 싶지는 않아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부당거래’가 현실과 맞닿아 있었다면 ‘베테랑’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현실이면 좋을 것 같은 영화죠. ‘베테랑’은 오락적으로 관객들에게 잘 맞춰진, 팝콘 먹으면서 즐기는 영화예요. 아니, 팝콘을 먹으러다가 영화에 빠져들면서 팝콘을 못 먹게 되죠. (웃음) 처음으로 영화를 찍으면서 힐링이 됐던 작품이에요.”

그는 전작 ‘국제시장’이 지난해 개봉해 누적관객 수 1425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명실상부한 국민 배우의 반열에 올랐다. 이번 영화는 관객들에게 흥행에 크게 성공한 작품 직후에 선을 보이는 것이어서 부담이 큰 편도 아니다.

“‘천만 배우’요? 그냥 이름붙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쓰는

거죠. 저는 배우 나부랭이일 뿐이에요. 제가 연극을 할 때 관객이 없어서 공연을 못 하기도 했거든요. (타이틀이나 흥행성적에) 크게 동요되지 않아요. 그냥 촬영할 때 재 즐겁고 우리가 즐거우면 관객도 즐겁다고 믿어요.”

흥행을 담보하는 목적인 중견 연기파 배우의 입지를 굳힌 황정민이 후배들에게도 강조하는 철칙은 무엇일까.

“까불지 말라고 얘기해요. 배우로서 가져가야 할 덕목이 아니죠. 늘 겸손해야 해요. 관객들이 우리를 보러 외주시는 거니 고마워하고, 돈(영화 관람료) 값을 하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몰으면 정답을 알게 된다고 얘기해주죠.”

마지막으로 황정민의 ‘명 수상소감’을 인용해 물었다. 이번 영화도 많은 분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것인지.

짧은 대답에 결코 찢지 않은 그의 배우 인생과 연기 철학이 오롯이 묻어났다. “늘 그래요. 암암하게(암암하게).”

연예인 “이젠 참지 않아요”...악플과 전쟁 선포



태연 법정 대응 예고 “자료 수집 중”

수지·준케이·수호 등 고소장 제출

스타가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악플(악성 댓글)이다. 인터넷이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대중은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되는 연예인들에게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쏟아낸다.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연예인들은 악플도 관심이라며 이에 따른 심적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고 만다.

김수미는 최근 악플로 마음고생을 한 대표적 연예인이다. 그는 지난 13일 열린 KBS 2TV ‘나를 돌아봐’ 제작발표회에서 악플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했다.

김수미는 “인터넷 기사 밑에 댓글을 보니 ‘김수미 니가 같은 고향이라고 박명수 쏘았다. 전라도끼리 잘 해먹어라’라는 글이 있었다”며 “너무 충격이어서 1분도 못 갔고, 자살하는 후배들 심정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충격 때문에 스스로 머리를 잘랐으며 울먹였고, 다른 출연자인 조영남과 김동욱을 빙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연예인들이 김수미처럼 악플을 참고 견디는 것은 아니다. 악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몇몇 연예인들은 고소 등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도 한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소녀시대의 태연은 지난 20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악플에 대한 법정 대응을 예고하며 팬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심한 악플 때문에 가족과 주변 지인, 팬들이 심하게 상처받고 있다”며 “내 사람들이 자꾸 스톱레스를 받 는 모습에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아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달 전 소속사와 상의 끝에 악의적인 글과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법적으로도 진행이 시작됐고, 추가로도 할 생각이다. 팬들도 자료가 있다면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악플에 대해 법정 대응을 고려한 연예인은 태연이 처음이 아니다.

뮤지컬 배우로 활약 중인 그룹 JYJ의 멤버 김준수도 지난 6일 트위터에 악플러를 고소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제가 더 열심히 하면 진심을 알 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넘어갔다”며 “그러나 도가 지나치다는 판단을 했고,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김준수는 “회사 법무팀과 진지하게 상의할 생각이다”라며 “팬들이 본 자료가 있다면 소속사로 전달해달라”고 덧붙였다.

실제 고소에 나선 연예인들도 여럿이다.

미쓰에이의 수지는 악플에 몸살을 앓은 대표적 가수다. 수지의 태어난 지역을 운운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 려’라는 내용의 악플에도 시달렸다. 보다 못한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악플을 단 누리 권을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6월에도 소속 그룹 2PM의 준케이와 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남긴 악플러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룹 엑소(EXO) 멤버 수호도 아버지가 친일파라는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에 대해 작년 11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터넷의 특성상 악플러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 고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처벌에 성공한 경우도 찾을 수 있다. 프로그래머 임요환 의 아내인 탤런트 김가연은 악플러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한 뒤 고소에 나서 프락시 우회(다른 컴퓨터의 아이피를 빌려 접속)를 쓴 악플러까지도 찾아내 처벌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